

“부동산 만으로 부족… ‘현금흐름’이 진짜 부자 만든다”



인터뷰 | 김 화 중 미래에셋증권 PWM 부문대표(상무)

김화중 미래에셋증권 PWM 부문대표(상무)는 “부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이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거주용 집 한 채는 필요하지만, 그 이상은 상징성에 가까운 트로피 자산”이라며 “눈에 보이는 규모보다 꾸준히 돌고 쌓이는 현금흐름이 진짜 부를 만든다”고 말했다.

리서치·운용·WM을 두루 거친 김 대표는 단기 수익률 경쟁보다 장기적인 ‘설계’에 방점을 찍는다.

김 대표는 “투자자는 결국 인생 설계의 일부”라며 “고객의 시간, 가족, 세금, 그리고 노후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그려야 한다. PWM은 그 설계를 돕는 플랫폼 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주는 1채, 투자자산은 글로벌로

김 대표는 고객들에게 “부동산을 팔라”가 아니라 “부동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는 “고가 주택은 세금과 유지비, 환금성을 고려하면 인컴 자산으로서 효율이 떨어진다”며 “자산은 배당과 이자처럼 눈에 보이는 현금흐름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외 자산의 절반 이상은 글로벌 현금흐름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며 “우량 글로벌 배당 ETF, 인컴펀드, 달러표시 채권을 축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거주용 집 한채, 그 이상 ‘트로피 자산’ 투자는 결국 인생설계의 일부 PWM, 그 설계 돕는 플랫폼 이어야

평범한 직장인의 IRP·DC 합계가 10억~20억돼야 韓경제 내구성 생겨 돈 ‘도구’ 일뿐, ‘설계’ 삶의 질 바뀌

김 대표는 투자 본질을 ‘혁신에 대한 베팅’으로 정의했다. 그는 “국내 비중 80%의 포트폴리오로는 세계 성장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AI, 헬스케어, 친환경 에너지 같은 구조적 성장 산업에 꾸준히 노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은 개별 종목보다 ETF를 통한 분산 접근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ETF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도 ‘시장에 머무르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개별 종목은 한순간에 탈락할 수 있지만, 섹터나 시장 ETF는 변동성을 견디게 해준다”며 “투자자는 타이밍을 맞추려 하기보다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장을 예측하기보다 구조를



김화중 PWM 부문대표가 메트로경제와 인터뷰 중인 모습.

/미래에셋증권

만들어야 한다”며 “주식 70, 채권·대체 30의 기본축을 지키고, 하락기에는 비중을 늘려 평균단가를 낮추며 상승기에는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원 비중으로 조정하는 것이 장기 성과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원칙은 단순한 투자법이 아니라 ‘흐름을 설계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상품이 아니라 설계… ‘코인베스트’가 만든 신뢰의 구조

그는 세대별 자산 설계 또한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했다. 그는 “2030 세대는 인플레이션 시대의 자산을 배우는 중이고, 5060 세대는 노후 현금흐름을 설계해야 한다. 같은 자산이라도 목적이 다르면 배치가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초고액자산가라 하더라도 연금은 부차적 자산이 아니다”며 “성과급 DC나 IRP를 적극 운용해 장기 복리를 체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평범한 직장인이 IRP·DC 합계 10억~20억원을 만드는 시대가 와야 한국 경제의 내구성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대표가 말하는 PWM의 궁극적 역할은 상품 판매가 아니라 ‘인생 설계’다.

그는 “고객은 돈을 맡기러 오는 게 아니라 인생을 설계할 파트너를 찾는다. 자녀 교육, 거주지 이전, 승계, 세금 구조가 모두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 PWM은 이를 위해 법무·세무·회계 전문가와 협업해 다국적 거주 고객의 거버넌스 설계, 글로벌 세제·상속자

문, 해외 법인 자산 이전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설계 중심 철학’은 회사의 투자 방식에도 반영된다.

김 대표는 “미래에셋이 먼저 투자하고 고객이 함께하는 구조를 지향한다”며 “회사가 직접 검증해 자기자본으로 참여한 뒤 그 기회를 고객에게도 공유하는 코인베스트(co-invest) 모델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페이스 X 같은 글로벌 비상장 성장 기업이나 최근 AI 유니콘 투자가 그 사례”라며 “회사가 실사와 법률 검토를 마친 뒤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신뢰를 쌓는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 철학을 ‘한국을 생각하는 PWM’으로 확장했다. 그는 “한국의 부자들이 글로벌에서 더 크게 벌어야 한국이 어려울 때 민간 자본이 마중물이 된다. 부를 국내 부동산에만 묶어두면 위기 때 함께 잠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적을 바꾸지 않아도 글로벌 투자는 가능하다”며 “한국 자산이 과매도일 때 국내 플레이어가 주도하려면 평소에 해외에서 돌아오는 현금흐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 대표는 “돈은 ‘도구’일 뿐이고, 도구로 만든 ‘설계’가 삶의 질을 바꾼다”며 “미래에셋 PWM은 고객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함께 투자한다. 그 철학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임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NH투자증권, 신뢰 강화 대책방안
윤병운 사장 팀장으로 TFT 구성

NH투자증권이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공개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점검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정보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윤병운 사장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T)를 구성, 내부통제 전반을 손보는 ‘신뢰 강화 대책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핵심은 사전 감시체계의 효율화다. 우선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전사적으로 등록·인증해 관리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취급 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사옥 모습. /뉴시스

직원 등록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본부 단위 중심의 통제 구조를 프로젝트별 관리 체계로 바꾸어 정보 접근과 이동 경로의 추적 가능성을 높였다. 공개매수, 유상증자, 블록딜 등 국내 상장주식 관련 IB 프로젝트 수행 임직원이 주요 대상이다.

자금세탁방지(AML) 기술을 활용한

점검 체계도 새로 도입된다. 내부통제 대상 프로젝트 관련 임직원의 당사 계좌뿐 아니라 타사 계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 가족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까지 점검한다. 우회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적발이 아닌 ‘선제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강화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기로 했다. 중요정보를 취득·이용·제공·유출할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전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윤리경영을 실질적으로 내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 6일 시행된 전체 임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수 금지 대

상은 국내 상장주식으로, 해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매수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주식의 매도도 가능하다. 경영진과 주요 의사 결정자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법적 평판 리스크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NH투자증권은 설명했다.

회사는 또한 익명성이 보장된 내부 제보 제도를 활성화해 제보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신뢰 강화 대책은 선언이 아닌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실질적 혁신”이라며 “정보관리 투명성과 내부통제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해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기준을 새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신한자산운용 ‘SOL 코리아 고배당’ 개인투자 800억 돌파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9월 상장한 ‘SOL 코리아고배당 ETF’의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가 835억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내 배당 ETF 중 가장 많은 개인투자자 자금이 몰렸다. 이에 따라 상장 당시 100억원 규모였던 순자산은 약 한 달 만에 10배 증가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상장 첫날이었던 9월 23일에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금액 215억원이 몰렸으며, 거래 개시와 동시에 상장 물량이 조기 소진됐다. 상장 이후 약 한 달간 개인 순매수 규모는 국내 배당 ETF 31종 중 1위로 이는 최근 고배당·질세형 상품에 대한 투자자 선호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단순히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담은 기존 고배당 ETF와 달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액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정책 등 주주환원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형 고배당 ETF다. 특히 감액배당 실시 기업의 배당은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혜택을 통해 실제 분배금 수령액 증가가 기대되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사와 함께 ▲현대차 ▲기아 ▲KT&G 등의 대표 고배당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보험업종으로 구성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사상최대 빚투 속 하락장 ‘반대매매 최대’

금투협, 반대매매 규모 219억 집계
주가 더 하락할 투자자 손실 우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매각당하는 반대매매 규모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 융자 규모가 사상 최대 규

모(26조원)로 늘어난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규모는 21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최고치로, 직전 최고 금액인 지난

9월 29일 197억원 대비 22억원 많다.

반대매매는 개인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산 후에 주가가 급락하거나 약속한 만기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주식을 산 후에 3거래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버린다.

이달 들어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평균 약 149억원이다.

지난달 평균 75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1월 들어 조금씩 그 규모가 급증한 셈이다. .

이같이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이 많이 늘어난 배경에는 이달 들어 코스피가 크게 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지난 3일 종가 기준으로 4200선을 뚫으며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이후 4000선 아래로 떨어지며 주저앉으면서 반대매매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허정윤 기자